

영등할머니, 잘 살펴 줘서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문무병

영등굿은 시베리아 서북계절풍의 바람 길을 따라 내려와 제주도에 봄꽃을 피우고 가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을 맞이하고 보내는 바람의 축제다. 그러므로 미래의 영등굿은 '영등굿의 세계화'이며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바람축제의 완성이다.

1. 영등굿이란?

음력 2월은 서북계절풍을 몰고 오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오시는 달, '영등 드는 달'이라 영등달이라 하며, 이 영등달에 부는 바람을 '영등바람'이라한다. 그리고 이 영등바람을 맞이하여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을 <칠머리당 영등굿>이라 한다. 그러므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은 영등달에 부는 영등바람, 음력 2월에 불어오는 바람, 시베리아에서 발원한 서북계절풍, 바로 그 영등바람을 몰고 제주를 찾아온 바람신(風神), 영등할망을 맞이하고 보내는 바람의 축제다.

○ 영등할망 왔다 가야 봄이 온다

해마다 음력 2월이 되면, 바람의 신 영등할망이 마지막 꽃샘추위와 함께 겹겹이 겨울 옷 입고 왔다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가면, 제주 땅에는 새봄이 온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 제주에 왔다가 2월 보름에 제주를 떠난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올 때



는 꽃과 곡식의 씨앗을 가져오며, 꽃샘추위를 가져 온다. 바람처럼 영등할망이 제주에 와서 봄꽃을 피우고, 곡식의 씨를 뿌리고, 꽃샘추위와 바람을 거두어 가면 바야흐로 새 봄이 온다. 영등할망은 원래 아름다운 신이었지만, 북극의 겨울과 시베리아의 서북 바람 처럼 맵고 변덕이 심한 신이다. 영등할망이 제주를 찾아오는 길은 시베리아 계절풍이 불어오는 바람길이다. 그러므로 영등할망이 제주에 오신다는 것은 제주도 음력 2월의 세시풍속이며 2월의 일기예보를 신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 영등할망의 며느리와 딸

제주 사람들은 영등달의 날씨는 영등할망이 딸을 데리고 왔느냐 며느리를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영등할망은 얼굴은 곱지만 마음은 변덕스러운 제주 2월 영등달의 날씨 같다고 한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머무는 15일 동안은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런 날씨와 매운 추위가 계속된다. 이 시기에 비가 내리면, “영등신이 우장(雨裝)을 쓰고 왔으니 비가 내리는 거지” 라 말하며, 날씨가 따뜻하면, “아이고, 헛 영등이 왔다”고 한다. 영등할망은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독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 헛 영등은 허술한 차림으로 오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하여 바람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영등 할망이 딸을 데리고 올 때는 딸과는 사이가 좋아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며느리와는 뜻이 안 맞아 날씨도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

2. 영등굿의 가치

(1) 파종의례

〈약마희(躍馬戲)〉는 서두를 말머리처럼 만든 떼배를 타고 바다에 씨를 뿌리는 ‘떼말놀이’로 모의적인 농경의례로서 육지의 〈세경놀이〉에 상응하는 ‘해전경작의례(海田耕作儀禮)’다. 이 굿놀이는 〈요왕밧이〉를 하여 요왕 길을 닦은 다음, 〈씨드림〉의 한 변형으로써 떼배 말을 타고 바다의 연안 어장인 여(磯)에다 씨를 뿌리고, 테우를 노저어 가면서 떼배를 놀려 밭을 밟는 행위를 연출한 〈놀이굿〉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도 〈씨드림〉은 굿판에 초석을 깔아 밭을 만들고 “동경국에서 서경국으로 씨 불이자”하고 줍씨를 뿌린 다음 점을 치기도 하고, 잡녀들이 직접 바닷가에 나가 줍씨를 뿌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약마희는 배를 타고 나가 씨를 뿌리는 ‘파종의례(播種儀禮)’인 것이다.

○ 영등대왕과 해양문화의 물길

영등굿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옛날 당나라 상인의 배가 제주에 난파되었는데 죽은 시체는 네 토막으로 흩어져 두개골은 어등개[魚登浦]에 떠오르고, 손과 발은 고내, 애월, 명월 등의 포구로 떠올랐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월 그믐 때, 온갖 바람이 서해로부터 불어오면, 이는 ‘영등신’이 오시는 것이라 하여, 바닷가의 어촌 사람들은 심방을 불러 바닷가에서 굿을 하였다. 굿은 밤에 시작하여 낮까지 이어졌다 하며, 떼 배에 말머리 같은 것을 만들어 삼색 비단으로 장식하고, 2월 10일서부터 보름까지 한림 애월 등지에서는 바다밭[海田]에 씨를 뿌리는 ‘떼말놀이’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하였다.

(2) 어부들의 해신신앙

옛날 영등대왕이 용왕국에 살았다. 한수리 고깃배가 풍랑을 만나,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나라로 불러가고 있었다. 영등대왕은 큰 바위 속에 어선을 감추어 주고, 한수리 어부들을 살렸다. 영등대왕은 어부들에게 태풍을 만나면 “관음보살”을 부르라 했다. 어부들은 풍랑을 만나면 “관음보살”을 외었고, 그때마다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육지가 나타나자 안심이 되어 “관음보살”을 부르지 않았다. 다시 풍랑이 일어 배는 외눈박이 나라로 불러 갔다. 어부들은 영등대왕의 도움을 받고, “관음보살”을 불러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관음보살’은 제주말로 ‘개남보살’이고 지금도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면, 눈 딱 감고 이 ‘개남보살’만 외치고 있으면, 바람이 자고 바람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구사일생의 체험담이 곳곳에서 전해온다.

3. 영등곳의 현주소

마을명	당명	신명	제명	제일	메인심방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신	영등송별제	2월 14일	김윤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가릿당	영등신	영등제	2월 1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물당	영등신	영등제	택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잠수계 굴청	요왕신	잠수굿	3월 8일	서순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삼심불뚝당	삼심불도	영등맞이	2월 12일	고순안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울리루당	하로산도	영등송별제	2월 13일	
제주시 성산읍 신평리	고척당	개로육서	영등손맞이	2월 13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백주할망당	금백주	영등손맞이	2월 1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세화본향당	금상님	당굿	2월 12일	
제주시 연평 동천진동	돈짓당	요왕도	영등송별제	2월 15일	
제주시 성산읍 오소리	서물당(어촌계)	서물한집	영등굿	3년에1번	
제주시 성산읍 온평리	온평리 바닷가	영등신	영등굿	2월12,13	
제주시 성산읍 신양리	하로산당	요왕국부인	영등송별제	2월 15일	양정순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	잠수계	요왕신	잠수굿	영등달택일	
서귀포 서귀리	동흥리본향당	부쿠릿도	영등손맞이	2월 13일	
서귀포 도순리	억머룻당	중의선생	영등손맞이	2월 14일	

구좌읍 동김녕리 잠수굿은 음력 3월 8일 날 한다. 이 굿은 다른 마을의 영등굿과 같다. “二月朔日 於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라는 것으로 보면, 김녕에서는 2월에 영등굿을 하던 것이 뒤에 마을의 사정으로 3월에 하는 <잠수굿>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해촌 마을에서 영등달에 하는 <잠수굿>이 <영등굿>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덕면 사계리에서는 2년에 한 번, 영등달 초에 날짜를 택일하여 <잠수굿>을 한다. 이틀에 걸쳐 크게 하는 굿으로 들쭉날 <요왕맛이>를 하여 길을 닦은 뒤에, 바다에 나가 씨를 뿌리고, 미리 바다 속에 전복 소라 등을 넣어 두었다가, 해녀가 직접 들어가 전복과 소라를 따 망사리에 담고 나와 어촌계에 가서 인정을 받고 판다. 이를 보면, 요왕길을 닦는 것,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경작할 바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해산물을 바다 밭에서 수확하는 모의적인 농경의례임을 알 수 있다.

4. 칠머리당영등굿의 행제과정

칠머리당 <영등굿>은 당굿을 겸하고 있으며, 선박을 가진 선주들과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영감놀이>가 ‘굿중 놀이’로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등굿의 기본형인 ① 초감제→ ② 요왕맛이→ ③ 씨드림·씨점→ ④ 배방선에서 ①과 ②사이에 <본향뚝>, ③과 ④사이에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제주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는 <영등굿>을 완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굿은 초감제를 하여 <영등신>과 <요왕신>을 모셔다 잠시 대기 시켜 놓고, 마을 사람들은 열명(列名)을 한다. 다시 당신을 모시기 위한 당굿으로 <본향뚝> 제차로 들어가는데, 초감제로부



터 <오리정신청궤>하여 <본향다리>에서 본향 당신을 놀리고, 맞아들인 뒤 삼헌관 절시키고 도산을 받고, 석살림 곳을 한다. 그리고 나서 <요왕맛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오리정 신청궤>를 두 번 하는 셈이다. 요왕길을 치워 닦으면,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모의적인 농경 의례로서 <씨드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부를 위한 풍어 곳으로 <영감놀이>를 하고, 배방선을 한다. 이로 보면 칠머리당의 <영등굿>은 다른 영등굿에 없는 <본향뚝>과 <영감놀이>가 삽입되어 굿의 규모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초감제]

(가) 초감제 삼석올림-청신삼배-궤문열림-①베포도업-②날과 국 섬김-열명-③연유닭음-④군문열림-⑤분부사뵐-⑥새도림 (나) 신청궤

[본향뚝] ①본향뚝 <팔찌거리묵음><본향들어옴>-②삼헌관 절시킴-③자손들 소지올림-④정대우-⑤도산받아 분부사뵐-⑥석살림

[추물공연] ①추물공연-②금벼리잔-③나까시리 놀림-④지장본풀이

[요왕맛이] (가) 초감제 (나) 방광침 (다) 추물공연 (라)요왕질침 (마)요왕문 열림

[씨드림] (가) 씨드림 (나) 씨점

[영감놀이] (가) 영감 청함 (나) 배방선

5. 영등굿의 발전방향

영등굿의 세계화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해양문화축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영등굿>을 통해 전통시대의 제주 마을축제의 다시 살아나야 한다.

둘째, <영등굿>은 관민 합동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영등굿>은 현대의 도시축제로 탈바꿈해야 한다.

넷째, <영등굿>은 세계인을 위한 <바람의 축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영등굿은 시베리아 서북계절풍의 바람 길을 따라 내려와 제주도에 봄꽃을 피우고 가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을 맞이하고 보내는 바람의 축제다. 그러므로 미래의 영등굿은 '영등굿의 세계화'이며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바람축제의 완성이다. 미래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인을 위한 축제, 미래의 아이들의 축제, 제주의 바람축제로서 영등굿은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를 경유하는 바람길에 한류의 조상 야쿠트족의 쇠북소리를 통해 전해온 샤머니즘의 북방문화와 태풍의 물길, 구루시오의 조류를 따라 흘러온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무속춤, 힌두교의 남방문화가 바람에 묻어와 꽃피운 바람의 축제, 해양문화축제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